

“中企 도와줘라”

대출 만기연장 등 지시

내광 김종창 금융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광주를 방문,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보증기간 확대와 금융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김원장이 기업은행 하남산단지점에 설치된 운영중인 ‘중소기업현장금융지원반’을 방문해 지역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보증 확대 및 만기연장 조치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하남산단 내 중소기업 2곳의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코팅전문업체인 ‘행성테크’ 관계자는 “대기업의 갑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급락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보증기간 확대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소기업들의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광주은행 본점을 방문, 2층 영업부 창구에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창구 직원들로부터 지역 기업 및 가계대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김 원장은 “어려울때는 생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계나 기업이나 새로운 채무 불이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재정금융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송기진 광주은행장, 홍성주 전북은행장, 윤광림 제주은행장 등 3개 지방은행장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갖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당부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물부족 호남 댐 더 만들어야”

이만의 환경장관 “영산강 되살리려면 하구둑 터야”

광주 시민·사회단체 초청강연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물걱정을 덜기 위해 추가 댐 건설과 함께 영산강 수질개선 방안으로 하구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이 장관은 27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발전과 환경’을 주제로 열린 광주 시민·사회단체초청연합 초청 강연에서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공업화를 촉진하려면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댐 건설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녹색성장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물 부족의 심화를 지적하면서 “물이

없어서 호남의 공업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대불산단이 공장 유치에 예를 썼지만 초기에 발전이 더뎠던 것은 공업용수가 부족해서였다. 공업용수를 공급해 줄만한 댐이 호남에 어디 있나”라며 댐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환경 보존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개발로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와함께 이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영산강 하구 개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배수관로 개폐, 하구인 절거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영산강 기능을 되살리려면 하구 개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

설했다.

그는 “중병에 걸린 영산강을 보존하려면 먼저 강 기능을 회복시키고 실개천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라며 “우리나라에 이틀에 800~1,000mm의 비가 올 만큼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4대강 살리기로 영산강의 범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매장문화에 대한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호남처럼 분묘가 많이 만들어지는 지역이 없다. 매우 한심한 현상”이라며 “돈 좀 벌었다며 자기 이름 새겨려고 투사 효과도 없는 데에 돈을 쓰는데, 집중 호우로 전부 쓸려 내려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 광주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광태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이 함께한 CO2 줄이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푸른광주 21등 21개 시민단체와 16개 기업체 등 민·관이 합동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건설협 ‘불발 쿠데타’

회장 직선 추진 소란 끝 무산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회원간 사대질과 고성인 오가는 추태가 연출됐다. 총회는 선출 방식을 표결에 부친 결과 직선제 안을 부결하고 현행 간선제로 신임 회장을 선출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7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무등파크호텔에서 전체 594개 회원사 중 93개사 대표회원 및 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51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한편 일부 회원이 긴급 안건으로 제안한 ‘대표회원제 폐지 및 19대 신임 회장 직선제 선출’ 안건을 부결시켰다.

‘현행 대표회원제 폐지’는 이날 “현행 대표회원제가 전체 회원사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이미 대표성을 상실했다”면서 ‘대표회원제 폐지 및 회장 직선제 선출’ 방식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 의결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남도회는 그러나 ‘직선제 선출안’ 상정 여부를 놓고 거수방식으로 찬반 표결한 결과, 93개사 회원들 가운데 단 2명

만 동의했을 뿐 나머지 회원들은 반대 또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전남도회는 ‘긴급 안건의 경우 총회 참석 회원 3분의 1 이상 동의해야 정식 안건으로 채택, 총회에 상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은 회장 선출권을 갖는 대표회원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회장을 전체회원 직선으로 뽑는 문제를 둘러싸고 회원들간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격렬한 입씨름을 벌였다.

회원들은 “현행 대표회원을 통한 선출 방식은 대표성을 상실했다. 직선제로 바꾸자” “직선제로 바꾸면 달라 지나” “직선제가 더 나쁘다”는 등 고성을 주고 받고 “발언권 좀 달라”며 긴급 발언권을 요구하는가 하면 마이크 쟁탈전까지 벌어지는 불성사나운 장면을 연출했다.

회장 선출 방식 변경은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오는 5월 치러지는 도회장 선거는 115명의 대표회원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지게 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北 미사일 조립 시작

3월말~4월초 발사 예정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장에서 미사일 추진체(로켓) 조립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북한이 시험용 신형성 광명성 2호의 운반로켓 ‘은하-2호’ 발사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공언한 것과 관련, “현재 지상에서 추진체 조립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추진체 조립을 시작한 것으로 미뤄 앞으로 1~2주면 준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실제 발사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무수단리 발사장은 아직 액체연료를 실은 탱크로리 차량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 “발사장 인근에 건설된 저유소에서 발사장까지 연료 파이프를 매설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유사시 한국방어를 위해 3월 9일부터 20일까지 ‘키 리플트’ 연합연습을 실시하며, 4월 초에는 런던 G20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구 실질소득·소비

작년 4분기 사상 최저

지난해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국 가구의 실질 소득과 소비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물가상승을 감안한 작년 4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의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302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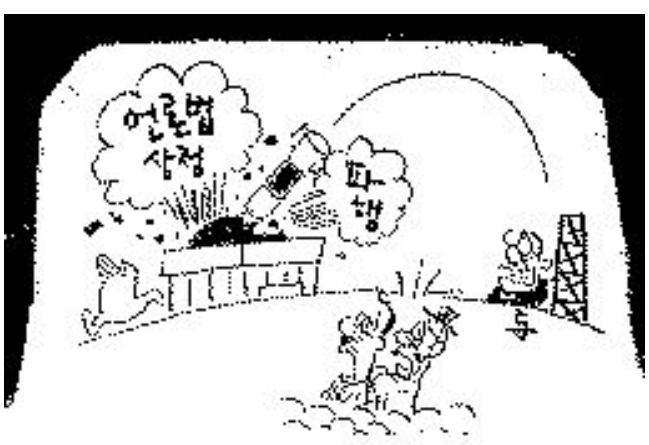
작년 4분기 실질소득은 203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4분기 기준으로 실질 소득과 소비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현상은 작년 9월 불거진 미국발 금융위기가 4분기 이후 국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구조조정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4분기 소득을 살펴보면 경상 소득 증가율(4.6%), 이전소득(13.3%)은 증가했으나 사업소득(-2.6%), 재산소득(-8.7%) 등은 줄었다. 즉 부동산 침체와 추가 하락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북 대표들은 저리 가라군

국정원 1차장 김 숙 2차장 박성도 3차장 최종흠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정원 1차장에 김 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차장에 박성도 전 국정원 정보판단실장, 3차장에 최종흠 국정원 상임자문위원을 임명했다. 김숙주 기조실장은 유임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 후 신임 차장들에게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철저히 공유함과 동시에 해당 부처의 고유 업무는 물론이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원세훈 원장 체제로 들어선 이후 이번 차장들이 전원 교체됨으로써 인사 쇄신을 포함한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원 국정원장이 당초 국내·외 정보 통합안을 제시, 1·2차장의 통합 및 가능별 재편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번 인사로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김 숙 박성도 최종흠

해외 업무를 맡게 될 김숙 1차장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 토론도 총영사 등 외교부 본부와 미주 지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외교교통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재임시 6차 회담의 정상화를 위해 전력해 왔다. 국내 담당인 박성도 2차장은 전복 순창 출신으로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분석업무에 종사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대처 경험이 풍부한 점이 눈에 띄었다. 현재 SK케앤에 감사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시 설

박람회 코앞인데 여수공항 민영화라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 선진화 사업(공항 운영권 민영화)’ 대상에 여수공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정부는 지방공항 중 1~2곳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하고 올 상반기 중에 대상 공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영화 대상 공항 선정 기준은 효율성과 수익성, 안전성 및 편의성, 국가정책 기여, 공항 경쟁력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 항목인 효율성(100점 만점에 50점)은 원가 절감 및 수익 증대 가능성을 주요 요소로 삼고 있어 적자 공항이 민영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적자 규모가 양양공항 다음으로 큰 여수공항이 선정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여수공항을 단순히 적자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여수공항은 오는

2012년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여수공항이 민영화되면 민간기업의 특성상 단기적 성과와 수익 창출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시설투자가 불투명해져 세계박람회의 관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여수엑스포 성공개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수공항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과 울진 제 1·2 지방산단, 광양제철소, 광양컨테이너 부두 등 국가 동남부 산업거점의 관문이기도 하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여수 공항의 민영화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세계박람회 개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여수 공항 민영화 운운하는 것은 박람회를 망치려는 행위나 다름없다. 민영화보다는 정부차원의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자율·경쟁’ 강조하더니 사교육만 늘었다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이 되레 사교육비 지출을 부채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 MB 정부의 출범 첫째인 지난해 총 사교육비 규모가 전년에 비해 4.3% 증가한 것이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는 총 20조9천억원으로, 전년(20조400억 원)보다 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영어 사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7만6천 원으로 11.8%나 늘었다. ‘영어 하나만은 공교육으로 확실히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MB정부의 교육 개혁이 헛구호에 그친 것이다.

이처럼 영어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무엇보다 새 정부의 영어몰입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영어몰입교육이 사교육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과 초등 영어수업 시간 확대 등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관련 학원에 내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사교육 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가정의 1인당 월 사교육비는 47만4천 원인 데 비해 월 100만~200만 원 가정은 10만8천 원, 월 100만 원 미만 계층은 5만4천 원에 불과한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기회마저 불평등해 진다면 안될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국회 봉쇄’ 대소동

국회가 봉쇄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곳곳에서는 여야 의원 간 충돌이 벌어지는 등 2차 입법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27일 오후 1시 분과 출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출입기자들과 상근근무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 보좌진, 당직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사무처는 민주당이 본회의장 앞 로터디홀에서 열 예정이었던 집회를 막기 위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 수십여명은 분과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위 및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분과 2층 현관 자동유리문이 뚫혀 나갔던 바 있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본회의는 다음달 2일 열린다.

민주당 의원들은 3일째 미디어 관련법이 계류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점거능성을 계속했다. 이날 오전 고홍철 문방위원장 등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과 주택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강경일 의원이 쓰러졌다.

여야 모두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한나라당은 “의원들은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서 비상대기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기습상정 이후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 등을 처리하려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해 실패했다. 교육과학기술위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취소됐고, 외교통상통일위는 다음달 2일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행정안전위는 이날 마스크,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처벌토록 하고, 쇠파이프 등을 휴대 및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조·보관·운반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불법 집회 단속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쟁점법안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許宰浩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 편집국장 曹度完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 우편번호 501-711 | | | |
|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www.kwangju.co.kr | |
|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 경영지원국 2200-511 |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
| 편집부 2200-672 | 문화생활부 2200-661 | 광고마케팅국 2200-521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
| 정치부 2200-634 | 여론매체부 2200-679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
| 경제부 2200-641 | 체육팀 2200-663 | 사회 1부 2200-612 | 사 진 부 2200-691 |
| 사회 2부 2200-612 | 사 진 부 2200-691 | (F A X 222-4267) | 조 사 부 2200-571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